

<2012년 3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원시인 지역에서 살면 원시인이 된다.
2. 사람이 그 지역에서 살면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영향과 주관을 받아 그 지역 사람이 된다.
3. 육계도 영계도 그러하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영향과 주관을 받으며 살게 된다.
4. 사탄 주관권에서 살면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살아야 되고, 하늘 생명 주관권에서 살면 하늘 생명의 영향과 주관을 받고 살게 된다.
5. 구원받은 차원 급에 따라서 법도 다르고, 주관을 받는 것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다.
6. 사막에서 살면 누구나 사막의 기후 영향과 사막의 환경 영향을 똑같이 받게 된다.
7. 기후가 좋고 환경이 좋은 곳에 살면 누구나 거기에 해당되는 자연의 영향과 주관을 받게 된다.
8. 구약 주관권에 살면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구약의 주관을 받고 살아야 된다.
9. 신약 주관권으로 나와서 사는 자는 누구나 구약 옛 법의 주관을 안 받고 벗어나서 신약 주관을 받게 된다.
10. 때가 되어 하나님은 성약시대의 문을 여시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시대에서 나와 성약 주관을 받고 살게 하셨다.

11. 구약 ; 신약- 성약 차원 세계 그대로 그 주관을 받고 그 법을 따라 살게 하셨다.

12. 세상 법도 그러하다. 누구나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주관을 받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13. 하나님의 구원역사도 그러하다. 누구나 시대에 따라 그 주관권에서 살면 그 주관을 받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살게 하셨다.

14. 사탄 지역에 살면 누구나 사탄의 간섭을 받고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의'로 싸워야 된다.

15. 하나님의 주관권과 사탄의 주관권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마치 바다와 육지가 구분되어 있고, 땅과 공중의 한계가 구분되어 있듯이 구분되어 있다.

16. 같은 하나님 주관권 세계라도 시대에 따라 선포한 말씀이 다르니, 시대 말씀을 듣고 그 주관권의 삶을 따라 살면서 복음을 외치며 신앙생활을 해 왔다. 또 새 시대가 오니, 하나님은 새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대마다 말씀이 차이가 나니, 서로 하나님을 내세우며 말씀 때문에 싸움을 해 왔다.

17.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도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사명자들을 통해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에 의한 복음을 펴 오셨다. 아버지는 같은데 배가 다르니 자손들이 서로 싸움을 하듯이,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시대성과 말씀과 제도가 각각 다르니 싸움을 하며 나뉘어져 산다.

18. 하나님은 차원을 높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역사의 차원을 높일 때는 그 시대에 맞는 법을 선포하신다.

19. 7000년 구원역사를 보면 구약 4000년 율법 주관권 세계와, 신약 2000년 예수님 복음 주관권 세계와, 성약 1000년 재림 복음 주관권 세계로 완전히 구분된다.

20.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주관권 세계다. 구원의 차원도 다르다.